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216장 다같이

1.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2.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열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3.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뉘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4.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 아 멘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누가복음 7:1-10 인도자

설 교 “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 ”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1.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능력을 주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사용케 하옵소서.
2. 교회학교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3. 전도통합예배를 위한 예비 신자를 걱정하고 축복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

누가복음 7:1-10

우리가 감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은 우리의 헌신과 믿음의 때다.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돌아온 법케를 보고 다윗이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출 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감동하셨다. 그리고 놀라운 복을 주셨다. 성경에는 큰 믿음, 작은 믿음도 나오지만 ‘놀라운 믿음’도 나온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다.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발견하지 못할 믿음이라고 칭찬하셨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다. 백부장은 그를 사랑했기에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식하고 “주님”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오시라고 초대했다. 장로들은 백부장을 칭찬하고 천거했다. 예수님께서 그 종을 고쳐 주기 위해 길을 가는데 백부장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길을 막았다. 자기는 예수님의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으로 치유해 달라는 것이다. 큰 믿음이었고 큰 겸손이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사람들을 돌려보냈는데 종의 병이 나아 있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백부장은 종교적이기 힘든 직업인이었고 지배민족이었고 많이 배운 자로서 군권을 지닌 자였다. 그의 위상과 평판을 고려하면 속국의 한 남성에게 나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회당을 지어 줄 정도로 재력도 있고 많은 병사들이 그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던 자였다. 믿음을 지니기 힘든 조건을 가진 자였다. 하지만 그는 종을 사랑했다. 고대에 종을 사랑하는 주인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는 그랬다. 대체로 치유 사역은 공홀 사역의 결과다. 이런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이다. 게다가 그는 유대인 장로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이다. 피지배민족인 유대민족을 위해 신경도 많이 쓰고, 회당도 지어주었다. 그래서 장로들이 그를 위해 간절히 구했을 정도다. 백부장은 사람들에게 좋은 증거가 있는 사람이다. 게다가 그는 겸손하기까지 했다. 종을 위해 예수님의 친림을 요청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러면 예수님께 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정결 예법 때문이다. 자기가 예수님께 율법을 깨뜨리도록 강청했다는 것을 깨닫자 즉시 사람을 보내 예수님의 오심을 제지했다. 예수님을 배려한 것이다. 유대인의 전통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게다가 그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다. 다른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고 자격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백부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였다. 백부장인 그도 휘하 군인들에게 절대적인 권세를 부릴 수 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것을 하라 하며 한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시다. 그가 명령하시면 응답하지 않을 피조물이 없다. 따라서 백부장은 원거리 치유를 부탁드렸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속국의 평범한 예수님께 절대 권위의 자리를 드렸다. 가이사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이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권위를 최고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 모든 인생 문제를 치유하는 열쇠는 하나님께 절대 권위를 두는 것이다. 그 결과 예수님이 감동하셨다. 그를 칭찬하셨다. 그리고 나서 종은 씻은 듯이 그 병이 나아 있었다. ▶하인의 치유는 예수님의 권위와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보여준 물증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권위를 최고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